미국 6월 CPI 리뷰 – 주요 세부 항목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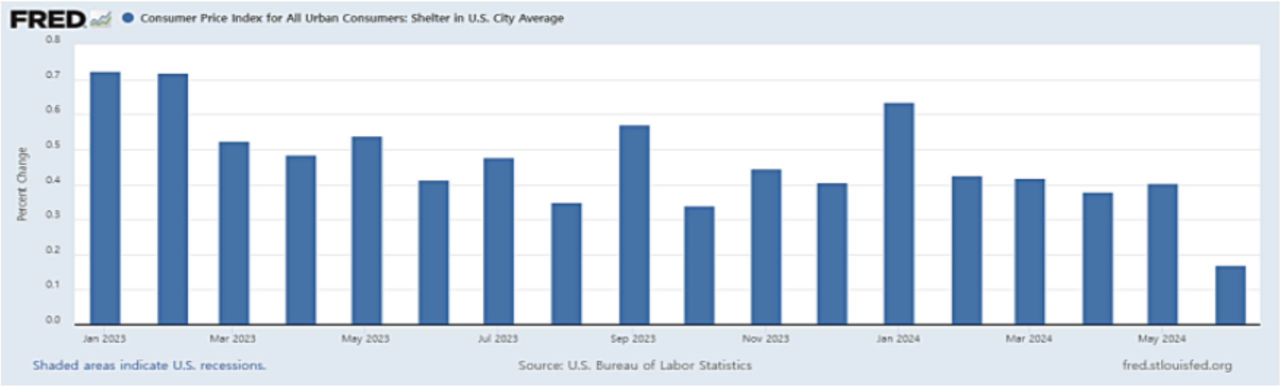
참고 : 원스글로벌경제 리포트

1. 개요

미국 6월 헤드라인 CPI는 전월비 0.1% '하락'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0.1% '상승'을 하회했다. CPI가 하락한 것은 2020년 5월 이후 처음이었다. 전년 동월비 상승률은 3.3%에서 3.0%로 낮아지면서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.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비 0.1%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 0.2% 상승을 크게 하회했다. 전년동월비 상승률은 3.4%에서 3.3%로 하락해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.

2. 주거비 – 마침내 디스인플레이션 시작?

헤드라인 CPI의 약 36%, 근원 CPI의 약 45%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(Shelter)는 전월비 0.2% 상승했다. **지난 4개월간 0.4%의 상승세를 유지하던 주거비가 마침내 둔화 조짐을 보였다**.



<CPI 중 주거비 전월비 상승률 추이>

주거비 둔화는 디스인플레이션을 기다려온 시장참여자와 연준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이었다. **작년부터 주거비는 선행지표를 고려할 때 유의미한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대표적인 항목**이었다. 그러나 주거비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뎌 파월 의장마저 '수수께끼'라고 언급할 정도였는데, 이러한 주거비가 마침내 둔화 징후를 보인 것이다. 다만, **이번 주거비 둔화에는 변동성이 큰 세부 항목인 숙박비(Lodging Away from Home)의 전월비 2% 급락이 일부 기여했다는 점을** 고려할 필요가 있다. 비중이 큰 주택임대료와 자가주거비는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0.3%의 상승 속도를 기록했다.

3. 자동차 가격 – 근원 상품 CPI 하락에 기여

6월 중고차 가격은 전월비 1.5% 급락했으며, 신차 가격 역시 전월 대비 0.2% 하락했다. **특히 신차 가격은 6개월 연속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이고 있다.**

<CPI 중 신차 가격 전월비 상승률 추이>

이러한 추세에 힘입어**, 근원 상품 인플레이션은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**, 근원 상품의 지속적인 디플레이션은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저항감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고 미국 경제의 일부, 특히 중저소득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. 이에 대해 6월 FOMC 의사록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데, **다양한 소매업체들이 가격을 인하하고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는 점을 언급했다. 또한, 기업들의 가격결정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는 경제성장 둔화, 기업들의 경제전망 악화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했다**.